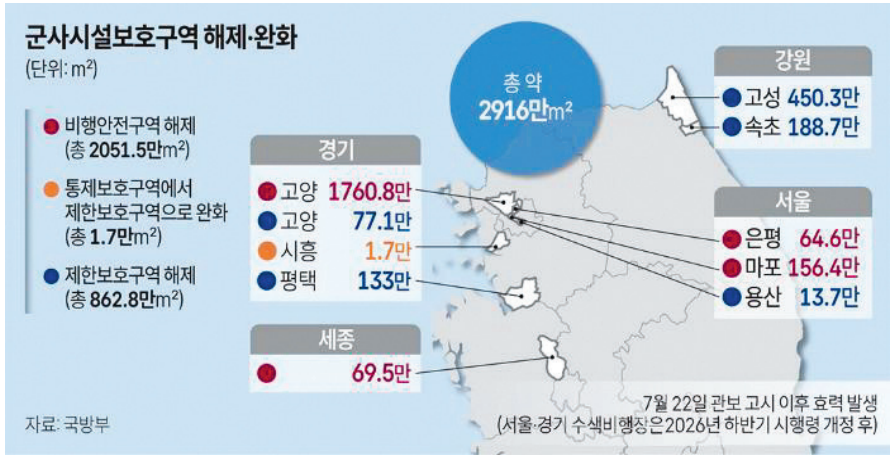
##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군 일대 최종 선정



국방부는 8월 28일 제2회 선정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군 작전성 등 제도적 타당성과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라는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한 결과로, 국방부는 향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1조 원 규모의 지원에 더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의 지원위원회를 구성,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남은 절차도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 10배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7월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 경기 평택·고양 등 5곳(862만8,000㎡)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특히 공군과 밀접한 비행안전구역도 대폭 해제되는데,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임무가 변경되며, 서울 마포·은평, 세종시 일부 등 총 2,051만5,000㎡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원대·제주대병원, 국내 최초 '준보훈병원' 지정



국가보훈부가 강원·제주권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국내 최초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한다.

이번 지정으로 9만여 명의 지역 보훈가족은 물론 전국 국가보훈대상자가 인근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특히 기존 위탁병원에서는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돼 상이유공자는 전액을, 비상이유공자 및 우선순위 유가족은 MRI·초음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으로 병원 이용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훈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한 뒤 정식 운영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 K방산, 사상최초 미국 진출



국산 무기체계 사상 최초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약 1,417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으며, 향후 최대 18문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의 포병 전력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76년 만에 역으로 미군의 전력 재건을 돕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쓴 것이며, 이는 까다로운 미군의 성능 평가를 뚫은 K-방산의 압도적 기술력과 방위사업청 및 민간 기업의 완벽한 '원팀' 공조가 함께 빚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에 공장을 임차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실시하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3국의 최첨단 공중·해양 전력이 대거 전개되며, 특히 현대 항공우주작전의 핵심인 다영역(Multi-Domain) 통합 대응을 위해 공동 훈련통제단을 운용하며 공중, 해양, 사이버 영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3국 전력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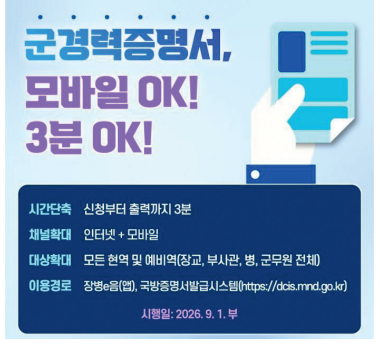
## 국방부, 남해안 수해에 대민지원 실시



남해안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방부는 8월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거제, 통영 등지에 병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우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은 부산 강서구 일대 농가를 찾아 침수된 벼를 세우며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했다. 육군 역시 거제 일대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을 도왔으며, 해군은 통영 도서 지역 복구를 지원하였다.

군은 지자체 요청과 추가 피해에 대비해 1,700여 명의 병력과 장비를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민지원 체제를 유지하였다.

## 군 경력증명서 모바일 발급 개시




취업과 학점 인정 등에 필수적인 '군(軍) 경력증명서' 발급이 9월 1일부로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그동안 수작업 처리로 최대 2주가 소요되던 발급 시간이 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직접 연동을 통해 단 1~2분으로 줄어 들었고, 인터넷 '국방증명서 발급시스템'과 모바일 앱 '장병e음'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도 원천 차단한 국방부는 향후 군에서의 헌신이 민간에서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 역량 중심으로 증명서를 재설계하고, 올 하반기에는 '정부24' 연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26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 성공적 완수




공군이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하정미 대령이 이끄는 100여 명의 훈련단과 KF-16 전투기 6대는 7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5,900km 무중단 전개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우리 공군은 연합편대군을 총괄하는 임무지휘관(MC)을 완벽히 수행해 다국적 작전 주도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해외에 수출된 국산 항공기(필리핀 FA-50PH, 인도네시아 T-50i)들과 나란히 비행하며 K-방산의 위상을 드높인 것도 값진 성과다. 낯선 환경에서도 무결점 출격을 지원한 정비·지원요원들의 헌신 속에 훈련을 마친 우리 공군은,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영공수호 대비태세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 E-737 항공통제기 최초 공중급유 자격 획득

공군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소속 조종사 4명이 E-737 항공통제기 최초로 공중급유 자격을 획득하였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호주에서의 시뮬레이터 숙달과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를 활용한 고난도의 주·야간 실전 비행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중급유 성공으로 '하늘의 지휘소' E-737의 임무 시간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연장된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원거리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임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권연준 소령은 "새롭게 확보한 장시간 체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 '2026년 시험평가·감항인증 세미나' 개최



공군은 7월 24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인공지능(AI) 및 첨단무기체계 시험평가·감항인증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관·군 등 각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의 환영사와 전문가 기조강연, 세션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차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공군은 KF-21 무장 통합 등 국산 무기체계 확보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문성 공유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KF-21 1600소티의 기적' 등 다양한 주제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AI 기반 첨단무기체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항공우주 전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2026 민·관·군 항공우주 안전 심포지엄 개최




공군은 9월 10일 공군호텔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6 민·관·군 항공우주 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학·연·관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항공우주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AI와 우주 등 첨단 영역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국가적 안전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미 공군 부대위험예측체계(URF) 등 최신 기술을 다룬 'AI 기반 항공안전관리'와 국가우주상황인식(SSA)체계 구축을 논의한 '우주안전관리'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손 총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전장 환경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혁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공군 KF-21 001호기 정식 인도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9월 22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 2001년 개발 선언 이후 25년여 만의 결실이다. 이날 사천 KAI를 이륙한 001호기는 T-50 계열기들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모기지인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에 전개했다. 최초 운용은 과거 F-4E 팬텀을 운용하다 14년 만에 재창설된 제156전투비행대대가 맡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명품 전투기 운용에 대한 자부심과 조기 전력화를 당부했다. 공군은 기종전환 훈련 등을 거쳐 2027년 후반기 공식 전력화(IOC)를 선포하고 2030년대 초까지 100여 대를 순차 도입해 한반도 공중우세를 주도할 계획이다.

## 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 초도요원 교육 수료




공군은 7월 13일 제39비행단에서 김성중 기획관리참모부장 주관으로 '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 초도운용요원 교육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MUAV는 중고도에서 장시간 체공하며 적 표적을 실시간 감시하는 킬체인(Kill-Chain)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조종사와 정비사, 센서통제사, 영상판독관 등은 체계 운용 및 영상 분석 등 전문 과정을 완수하고 MUAV 전력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며, 공군은 이를 시작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장거리 자폭무인기 등 미래 전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력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48명의 신임 보라매 탄생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9월 15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5-3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고 신임 조종사 48명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KT-100, KT-1, T-50으로 이어지는 1년 9개월간의 혹독한 입문·기본·고등 비행교육을 완수하며 첨단 비행 전술과 공중 상황판단 능력을 숙달했다.

영예의 공군참모총장상은 한민수·여태호·한예주 대위(진)가 수상했으며, 김범수 대위의 뒤를 이어 여동생 김민수 대위(진)가 KF-16 조종사가 되며 새로운 '보라매 남매'가 탄생해 주목을 받았다. 손 총장은 "강한 정신전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정예 조종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향후 기종전환 훈련 등을 거쳐 조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게 된다.

## '제3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공군과 국방부는 9월 18일 '제3회 군인가족의 날'을 맞아 공군호텔과 각급 부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공군본부는 24시간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를 담당하는 격오지 사이트 부대장과 항공작전 지원요원 등 모범 장병 및 가족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제1전투비행단과 제3훈련비행단 등 예하 부대에서도 가족 초청행사를 마련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 단기기동 관람과 KT-1 주기장 견학을 지원하며 보라매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였다. 365일 조국 영공수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군인가족의 숭고한 헌신에 국민적 관심을 높인 날이었다.

## 대통령, 브라질서 우리 공군 도입 수송기 시찰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6일 브라질리아 공군기지를 찾아 우리 공군의 차기 대형수송기인 C-390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엠브라에르사 경영진과 만나 이번 도입 사업을 시작으로 양국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우리 공군은 올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총 3대의 C-390을 차질 없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낯선 타국에서 기체 인수와 운용 교육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13명의 우리 공군 조종사 및 정비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 공군 시그너스 네팔 대홍수 구호 출격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본 네팔 현지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과 구조장비를 수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9월 2일 새벽 출격했다.

이번 작전은 2023년 튀르키예 지진과 캐나다 산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해외 재난구호 투입으로, 공군 전략 자산의 탁월한 장거리 공수 능력을 재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네팔에 전개한 구호대는 고해상도 드론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한 구조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조작업을 수행하였다.

## 한미 공군, 연합 대드론 전력 통합운용



한미 공군이 고도화되는 무인기 위협에 맞서 연합 대드론 방어망을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은 9월 3일 오산기지에서 '연합 대드론 현장전술토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양국 작전 관계자들은 미 51전투비행단 현장에서 대드론 장비를 점검하며 작전수행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양국의 탐지·식별 체계를 융합하여, 연합지휘소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 대드론 전력을 통합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준선 공작사령관은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를 당부했으며, 양국은 향후 실제 연합연습을 통해 오산기지 방호를 비롯한 대드론 작전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제255기 공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는 8월 27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55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3개월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342명의 신임 부사관이 조국 영공 수호의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255기는 역대 최고치인 94.2%의 임관율을 기록했다. 이는 훈련 1주 차 적응 기간 신설 등 양성프로그램을 개편한 교육사의 값진 성과다.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김경민 하사가 차지했으며, 공군전우회장상은 오동원 하사가 수상하였다. 부상 전역 후 혹독한 재활과정을 거쳐 재입대한 유원준 하사 등 화제의 인물도 눈길을 끌었다. 손 총장은 훈시를 통해 "자부심을 품고 최고의 군사전문가로 성장해 줄 것"을 신임 부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KF-16 전투기 주기검사 2500대 출고 달성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1997년 창설 이래 약 30년 만에 KF-16 전투기 주기검사 2,500대 출고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20전비는 8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공군 항공정비 역량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주기검사는 비행 200시간에 도달한 전투기를 종합 점검하는 핵심 안전절차다. 1대당 160여 명의 전문 정비 인력이 투입돼 15개 계통, 360여 개 항목을 치밀하게 점검하며 최상의 성능을 유지한다. 김정유 부품정비대대장(중령)은 "정비사들의 헌신과 축적된 기술이 맺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정비로 조종사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프랑스 연합공중훈련 성료



대한민국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7전투비행단(청주기지)에서 3년 만에 연합공중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과 프랑스 라팔, A-330 MRTT가 참가했다. 양국 전력은 KC-330과 A-330을 통한 상호 교차 공중급유와 아군·가상 적군 간 전술비행을 완벽히 소화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렸다. 특히 우리 조종사의 라팔 동승 비행과 부산 유엔기념공원 상공에서의 6·25 참전용사 추모비행을 통해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혈맹의 역사를 재확인했다.

## 2026 통합방공·미사일방어 포럼 개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10월 1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민·관·군·산·학·연 전문가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통합방공·미사일방어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최근 중동전쟁의 전훈을 토대로 진화하는 적의 드론·미사일 복합위협에 대응하고 미래 방공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변화에 맞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복합·다층·중첩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고도화하는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석학과 안보 전문가들은 저비용·고효율 요격대책 등 통합방공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공군, 조종사 선발제도 대폭 개선



공군이 미래 영공을 수호할 대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조종 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9월 6일 발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휴학생의 지원 허용이다. 기존 학군사관 선발 시 필수였던 '복학 완료' 요건을 완화해, 임관 연도 2월에 정상 졸업이 가능하다면 선발 당시 휴학 상태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사사관 지원 시 비행 경력 유무에 따라 '입문과정'과 '기본과정' 입과로 세분화 모집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발맞춰 '평균 1.6등급 이내' 기준을 신설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군은 우수 조종사 자원을 한층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9월 17일 광주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지부 골프동호회 월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염일석 골프동호회장과 손정문 지부장, 김용열 부회장 등 회원 다수가 참가하여 여름을 보내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선후배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광주지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기지 이전 등 현안과 관련하여 제1전투비행단 지휘관 참모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최원규)는 7월 20일과 9월 18일, 회원 간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강릉 시내 식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최원규 지회장을 대신해 행사를 주관한 권승천 부회장은 새로 가입한 장종석 회원을 환영하며 계속 지회 활성화와 회원 영입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익산지회




익산지회(지회장 최병훈)는 7월 25일 회원들의 단합과 휴식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대아리 일대에서 하계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자연생태 체험마을과 저수지, 휴양림 등이 위치해 있는 대아리 수목원 인근에서 회원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씻어버리고 서로의 추억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루종일 이어진 야유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충주지회




충주시지회(지회장 조동주)는 7월 16일 중원체력단련장에서 지회골프동호회 주관 충주공군전우회 임원 및 회원들과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무더위 날씨임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운동 후에도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모임을 실시하였다.

##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9월 21일 대구시내에서 대구 공군전우회의 모태인 창공회(회장 정중규) 창립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다.

1966년 경북지역 예비역 장교 모임으로 시작된 창공회는 대구경북보라매회로 변경되었다가 1995년 대구광역시 발족 시 각 신분별 34개 모임을 통합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호국안보단체로 거듭났으며, 현재는 원로회원들로 구성되어 대구지부 산하 조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학재단(이사장 권태정)에서는 지난 7월 27일,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영천 호국원을 찾아 김용수 예)장군과 황일우박사의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9월 10일, 성남시 여수동 주말농장에서 9월 정기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박문석 지회장을 비롯해 정수 고문, 안제성 사무총장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6월 실시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안보견학 이후 마련된 분기별 정기모임에서 회원들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 충남서부지회



충남서부지회(지회장 조봉환)는 7월 23일, 당진, 홍성, 예산, 합덕 전우회 중 당진분회 박상영 회장(예비역소령)주관으로 지회 모임을 실시하였으며, 당진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선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신규 가입한 박후신(259기). 이규성(259기) 회원을 환영하고 회원 상호간 안부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